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 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日방류 우려 매우 커 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문 대통령, 아이보시 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본국에 우리 정부·국민 우려 잘 전달해달라”
靑 내무엔 “잠정조치 포함 제소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屋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 제정식을 갖은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아이보시 일본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서 극히 이해적”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제정식에 앞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 청와대 내부에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강력 규탄”

도의회 한빛원전 특위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에 따라 방류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특위차원의 입장을 14일 표명했다.



전주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제3차 임시회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외치고 있다.

“보훈수당, 지역별로 편차 커” 제도 개선 촉구

시의회의장협의회… 그린뉴딜 완성 관련 법 개정도 건의

전주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4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불평등 보훈수당 제도개선 촉구 건의’와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송 의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4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불평등 보훈수당 제도개선 촉구 건의’와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송 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4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불평등 보훈수당 제도개선 촉구 건의’와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우수기업 양성’ 창업 혁신의 현장 찾아

우범기 정무부지사,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찾아 현장 행정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14일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를 찾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홍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이상우 창업보육센터장과 (주)모스터일렉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창업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 성장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14일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찾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14일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찾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홍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이상우 창업보육센터장과 (주)모스터일렉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창업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 성장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무부지사는 “탄소 소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제품 상용화로 시장성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모스터일렉 김보민 대표는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기업 대상의 자급이나 제품개발 등의 지원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주)수테크놀로지 김상규 대표는 기술개발 시범 구매제품으로 선정됐지만, 판로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디앤에스(주) 박성민 대표는 “창업 후 3~5년 죽음이 계속 극복을 위해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

김운덕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전주시 갑)은 지난 8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간병인 등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자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검사비용을 면제받는 방역 조치 2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인 상황이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및 운영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육성 지원 조례 발의

조동용 의원의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이 전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시사가 매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대체부품 판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송 지원 등 자동차 대체부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I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심사 마무리에 착수했다. 여야는 12일부터 사흘 연속 소위를 열고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켰다.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만 190만 명에 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전북 선관위,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시민의식 향상 협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북 선관위 회의실에서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갑 전북선관위 사무처장과 김학권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상호간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대상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선관위는 올바른 후보자 선택기준, 투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용 교재를 알기 쉽게 작성해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제공하고, 민주시민강사를 지원해 문해교육식 선거교육을 같이 실시한다.